

최정희의 해방기 소설에 나타난 ‘독립/해방’의 의미

차진화*

요약

이 글은 최정희의 해방기 소설에 나타난 독립/해방의 의미가 민족 광복에 국한된 것이 아닌 광복 주체의 서로 다른 기대와 사상 경사의 표지로 작용하는 점을 살펴보고자 했다. 독립/해방의 나란한 배치는 최정희의 표현에 따른 것으로, 두 개념이 양산하는 담론은 서로 다르지만, 해방기를 일제식민지기와의 연장선에서 파악할 때 광복 주체들이 겪는 일상의 고초를 구조적 문제로 파악할 수 있다. 최정희의 독립/해방에 대한 관심은 학창 시절의 영향 관계에서 비롯하여 등단 초기부터 꾸준히 초점화되었던 것으로 단순한 포즈라고 말할 수 없다. 해방기 소설은 지배 권력과 이에 맞서는 주체의 대립적 구도라기보다 지배 권력에 의해 해방기에 걸었던 기대가 좌절되는 주체들을 재현하면서 일말의 기대에 대한 가능성을 해방공간이 갖는 가능성으로서의 상징 속에 배치하고 있는 것과 같다. 이는 사상적 경사를 넘어 구체적 삶 한가운데에 있는 독립/해방의 의미를 찾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주제어: 최정희, 해방기 소설, 독립/해방, 삼분병작제, 남한단독정부수립

* 서울시립대 국어국문학과 박사 수료

목차

1. 들어가며
2. 독립/해방의 사상적 주체, 그 가능성
3. 삼분병작제와 독립/해방 주체의 기대와 좌절
4. 남한단독정부수립과 독립/독입/해방
5. 나가며

1. 들어가며

이 글은 최정희¹⁾의 해방기 소설²⁾에 나타난 독립/해방의 의미가 민족 광복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광복 주체의 서로 다른 기대와 사상 경사의 표지로 작용하는 점을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정희는 일제식민지 시기에 등단한 후 오랫동안 여류작가라는 프레임 안에서 동반자작가, 가장 여류다운 작가, 여성/모성의 갈등과 공모를 다루는 작가 등으로 평가 받아 왔다.³⁾ 그리고 좌익적 경향이나 친일행위, 또 반공의 행적과 같은

- 1) 최정희는 1931년 6월에 「가을 細線 스케치」(수필, 『신여성』), 8월 14일에 「항구」(수필, 『조선일보』, 1931.8.14. 5면), 10월에 「정당한 스파이」(소설, 『삼천리』)를 발표하면서 문학가로서 자리매김한다. 그의 출생 연도는 1906년, 또는 1912년으로 정확하지 않다. 하지만 숙명학교 졸업 후 중앙보육학교 생활 또 동경에서의 유치원 보조 활동, 귀국 후 활동인 『삼천리』 입사 시기인 1931년을 기준으로 할 때 그의 나이는 만25세, 19세로 환산된다. 한국사회에서 호적상 나이와 실제 나이가 서로 다른 경우는 호적법이 시행된 1960년 이전까지 비밀비재했던 현상이고, 1960년 이후에도 가끔 발견되는 현상이다. 무엇보다 최정희의 유족 김채원의 구술 증언에서 1906년으로 명시하는 점(방민호, 「1930년대 후반 최정희 소설에 나타난 여성의 의미」, 『한국현대소설연구』 30, 한국현대소설학회, 2006, 65면)은 이러한 사실에 힘을 실어준다.
- 2) 해방기의 시기 구분은 광복 기간부터 미군정통치 시기(1945.8.~1948.8)로 보는 견해와 한국전쟁 직전까지(1945~1950)로 보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본 글은 두 번째 견해를 따르기로 한다. 해방기 작품으로는 「봉수와 그 家族」(『민성』, 1947.7), 「占禮」(『문화』, 1947.7), 「風流잡히는 마을」(『백민』, 1947.8-9), 「꽃 피는 季節」(『새한민보』, 1947.11. 상순호), 「淸涼里역 근처」(『백민』, 1948.1), 「우물치는 風景」(『신세대』, 1948.2-5), 「靑塔이 서 있는 洞里」(『부인』, 1949, 1, 3, 4, 7), 「비탈길」(『문예』, 1949.8-9) 등이 있다.
- 3) 김윤식은 「인형의식의 파멸」(『한국문학사 논고』, 법문사, 1973, 228면)에서 식민지 시기 여성

례에 있는 작품에 대해서는 시대에 따라 주류에 편승한다는 논리로 논의되기도 했다.⁴⁾ 이러한 다양한 평가는 그만큼 최정희가 당대를 민감하게 작품 속에 반영했다는 말일 수 있다. 격변기를 관통했던 작가임을 고려한 논의에서는 젠더적 시각을 바탕으로 친일작품에 대한 새로운 의미망을 찾거나,⁵⁾ 또 남성 중심적 문단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⁶⁾으로 재해석되기도 했다.

최정희의 해방기 소설 역시 적극적인 읽기가 시도되고 있다. 농민들의 가난이 사실적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논의⁷⁾에서 출발해 미군정의 획책을

문학 그룹을 3단계로 구분하는데, 1기는 나혜석, 김명순, 김일엽, 2기는 최정희를 포함한 박화성, 강경애, 김말봉, 이선희, 백신애, 장덕조, 송계월, 노천명, 모윤숙 등이다. 이러한 분류는 당대의 평가가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타 여류작가와 최정희를 비평하면서 동반자작가로 분류한 경우는 유수춘의 「조선현대문예사조론」(『조선일보』, 1933.1.3.-5), 여류다움에 대한 논의로는 홍구의 「여류작가군상」(『삼천리』 5권 제3호, 삼천리사, 1933.3), 곽중원의 「최정희론」(『문예』 1, 1949.8)이 있고, 1970년대는 조병무의 「최정희론」(『답돌이』, 범우사, 1974, 11면)을 들 수 있다.

본격적인 논의에서 여성성의 전형이라고 본 경우는 이미리의 「최정희론」(숙명여대 석사학위 논문, 1980)에서 모성적 윤리관을, 박정애의 「최정희 소설에 나타난 여성적 글쓰기의 특성 연구」(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98)에서 가부장제 사회에서의 생존전략이라는 관점에서 논의하고 있다.

- 4) 신영희는 최정희가 등단 초기의 동반자적 소설을 쓴 것은 카프의 변성과 무관하지 않고, 일제말기 총동원체제에 협력하고 친일적 작품을 생산한 것과 관련하여서는 외부적 강압이라기 보다는 자발적 내적 논리라는 관점을 취한다. 또 전후 국가 건설기의 반공 이념 선동선전은 일제체제 협력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본다. 신영희, 「식민지 조선에서의 징병제와 군국 모성: 최정희의 1940-1945 작품을 매개로」, 『대동문화연구』59,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7.
- 5) 최정희는 최정희의 친일작품으로 거론되는 『야국초』에서 아버지가 없는 아들에게 아버지를 심어주고자 한 내적 동력이 일본제국의 지원병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과 함께 이른바 조선의 지식인 남성들의 위선과 허약을 비판하는 작품으로 볼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었다. 최정희, 「친일 문학의 또 다른 층위-젠더와 〈야국초〉」, 『해방전후사의 재인식 1』, 책세상, 2006.
- 6) 심진경은 최정희의 소설에 나타난 변화가 여류작가라는 선입견을 토대로 한 남성 평론가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때문에 의도적으로 탈을 쓴 결과이며, 이에 가장 여유다운 여류라는 평을 끌어낼 수 있었다고 본다. 심진경, 「최정희 문학의 여성성-여성작가로 산다는 것」, 『한국근대문학연구』 7, 한국근대문학학회, 2006.

부각하고 반미소설 계보에 위치시키거나,⁸⁾ 해방 후 무정부 상태에 놓였던 실제 상황과 연계해 본격적인 국민국가 만들기로부터 배제되는 수난자들의 서사로 분석하는 경우,⁹⁾ 또 젠더적 관점에서 헤게모니적 남성성과 불화하거나 저항하는 여성성을 발견¹⁰⁾하는 데로 확장되고 있다.

최정희는 해방 직후 바로 작품을 발표한 것은 아니다. 그는 1947년부터 작품을 발표하기 시작하는데,¹¹⁾ 2년에 가까운 공백이 시사하는 바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긴 하나 친일 이력이 있던 문인들이 해방 직후 바로 작품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맥락도 고려될 수 있다.¹²⁾ 최정희

-
- 7) 대표적으로 이병순, 「현실주수와 낭만적 서정의 세계」(『현대소설 연구』 26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5, 131~149면)가 있다.
- 8) 김복순, 「해방직후-신식민지하 정치적 여성주체의 등장과 반미소설 계보의 창출」, 『나는 여자다-방법으로서의 젠더』, 소명출판, 2012, 104~133면.
- 9) 이민영, 「해방기 소설과 수난의 서사」, 『한국현대문학연구』 45호, 한국현대문학회, 2015, 123~151면.
- 10) 배상미는 최정희의 해방기소설에서 헤게모니적 남성성과 이것에 맞서는 사람들이 재현된 양상을 젠더적 측면에서 분석하면서, 일제시기와의 연속성에 놓고 미군과 결탁한 지주세력, 그리고 이들에 의해 소외된 농민들의 구도에 기초해 농촌마을에서 나타난 갈등 양상을 그린다. 이러한 논의는 이 글의 방향과 일정 부분 겹친다. 하지만 배상미가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따르지 않는 주체들의 저항에서 연대 가능성을 모색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 글은 지배층과 광복 주체들의 갈등을 기대와 좌절의 양상으로 살피되, 좀 더 복잡하고 미묘한 지점들의 제시를 통해 저항적 측면보다는 기대가 좌절되는 측면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 점에서 배상미의 논의와 변별된다고 본다. 이러한 전략은 독립/해방의 문제가 기대의 좌절을 통해 오히려 그 의미를 강조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배상미,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넘어서려는 연합적 정치들: 해방기 최정희 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49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0, 63~90면.
- 11) 「봉수와 그 家族」(1947년 『민성』 3권(5·6호) 7월호의 34~35면, 17면)은 1946년 작으로 논의되어왔으나, 창작 연월일이 아닌, 지면 발표를 기준으로 할 때 「占禮」와 함께 1947년 7월로 확인된다.
- 12) 류진희는 최정희가 1947년 후반기부터 작품을 제출한 것에 대해 제국에 협력했던 이력 때문이라고 보며, 이양숙은 친일 이력이 있었던 문인들이 해방 후 바로 작품 활동을 못 한 것에 대해 이 시기를 절저한 자기비판을 수행했던 시간으로 본다. 류진희, 「해방기(1945~1948) 감정의 전환과 젠더 동학-여성작가의 소설을 중심으로」, 『구보학보』 28, 구보학회, 2021, 449면.; 이양숙, 「해방 직후 한국문학의 서발턴과 듣기의 윤리」, 『한국현대문학연구』 67, 한국현대문학학회, 2022, 131면.

의 해방기 소설을 덕소 체험¹³⁾ 중심으로 한 것과 그 외의 작품으로 구분할 때, 「봉수와 그 家族」, 「占禮」, 「風流잡히는 마을」, 「우물치는 風景」 등에서는 해방 직후 미군정하에서 실시된 삼분병작제를 둘러싼 지주와 소작농들의 관계 양상을, 또 「靑塔이 서 있는 洞里」, 「비탈길」 등에서는 일제식민지기의 강압적 정책에 노출된 주체들을 공통적으로 포착할 수 있다. 이는 또 남한단독정부수립 전과 후의 차이로도 구분될 수 있다.

최정희의 해방기 작품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이전 작품과는 결이 다른 방식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인데,¹⁴⁾ 그러나 최정희는 작품 세계가 달라졌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¹⁵⁾ 이 글의 문제의식은 여기에 있다. 기왕의 연구가 주목하고 있는 작품 세계의 변모에 대해 본인만이 동일한 것이라고 말하는 이러한 작가의 신념은 어디서 기인하는 것이며, 작가는 어떤 점에서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일까.

이 글은 앞선 논의에 충분히 기대면서 최정희의 신념체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앞에서 제시한 작품들을 대상으로 할 때 신념체계는 '독립/해방'의 의미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드러날 것으로 본다. '독립/해방'은 작품 속에서 나란히, 또 각기 사용되면서 민족 광복이나 항일운동, 봉건적 사회의 제약 등을 문제 삼거나, '독립'과 '독입'을 구분하면서 남한단독정부수립을 전후한 생활실태와 해방 이전을 건주는 등 다양한 층위를 만든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점은 '독립/해방'의 의미가 실생활과 밀착해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최정희의 현실 인식과 연계하는 것일 수 있다. 많은 연구

13) '덕소'는 최정희가 약 7년간(1941~1948) 파인 김동환과 두 자녀와 함께 기거한 곳이다.

14) 백철의 논의가 대표적이다. 그는 최정희의 해방 이후 작품과 그중에서도 「風流잡히는 마을」에 대한 평에서 과거의 작품 세계를 칭찬하고 객관적인 현실을 그려보려고 노력하지만, 한계가 많다고 말한다. 백철, 「여류문학의 현상, 최근 작품을 중심으로」, 『중앙신문』, 1947.9.28.; 「현상은 타개될 것인가(6)」, 『경향신문』, 1949.1.12. 3면.

15) “解放後의 내 作品 世界가 달라졌거나 아시는 분들이 계신듯하나 素材가 달라졌을 뿐이지 作品 世界는 前이나 後이나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최정희, 「나의 문학생활자서」, 『백민』 4, 1948.3.; 「뒷밭 몇마디」, 『風流 잡히는 마을』, 아문각, 1949, 221면.

자가 최정희의 작품에서 주목했던 ‘여성/모성’의 의미 역시 궁극적으로는 현실 대응 양상과의 관계 속에서 짚어질 수 있는 문제다.¹⁶⁾

다시 말하자면 이 글에서 다루려고 하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최정희의 신념체계를 밝히기 위해 해방기 소설에서 드러나는 특징을 ‘독립/해방’으로 상징하고 그 의미를 섬세하게 살피는 것이다. 최정희는 일제치하에서의 국내외 독립운동과 상징적 사건으로서의 기미년 독립운동, 그리고 8·15해방을 병치하는 전략을 구사하면서 일제식민지 시기와 조국 광복의 시기를 연속적 사건으로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이는 일제식민지기와 신탁통치기가 서로 자리 바꾸기만 했을 뿐 달라진 게 없다고 본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살피는 일은 차이점을 부각하면서 공통점을 발견하고 또 해결점을 모색하는 과정으로서의 최정희의 의도를 파악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해방기 소설 속에 나타난 독립/해방의 맥락이 최정희의 학창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체득되고 각인된 인식 체계라는 관점을 취함으로써, 이를 당대 팽배했던 사회 활동과의 연관성으로 살피는 것이다. 즉 1920년대 중후반 신여성으로서의 수학이 이후 다양한 사회 활동으로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근우회나 사회주의 사상에 경도되었다고 보는 관점이다. 이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여성 작가들 작품 속에 나타나는 사회주의 사상의 경도가 남성 주체의 영향, 곧 오빠, 애인, 남편 등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관점이 우세하고, 이에 별다른 고민 없이 수용되었다는 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¹⁷⁾ 따라서 이 글은 최정희의 사회주의적 작품 경향이 남편 김유영¹⁸⁾의 만남에서 형성되었다는 견해에

16) 방민호, 앞의 글, 77-80면.

17) 김연숙에 의하면, 1930년대 여성작가들의 사회주의 사상의 경도가 남성 주체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이유로 비판 대상이 되지만, 당대 사회적 환경상 남성 주체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인정돼야 할 부분이다. 최정희의 사회주의 사상도 이러한 맥락에 놓여있다. 김연숙, 「사회주의 사상의 수용과 여성작가의 정체성」, 『어문연구』 33권 4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5, 338-339면.

대한 문제 제기으로써, 1~2년 만에 형성된 단순한 포즈가 아니라는 관점을 취할 것이며, 첫 번째 문제의식에 선행하여 검토될 것이다.

이 글이 두 가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해방기 소설에서 주목한 부분은 주체들의 현실대응 양상이다. 먼저는 여성 및 “가난하고 우매한 농사꾼들”¹⁹⁾을 살필 것이다. 미군정하에서 시행된 ‘삼분병작제’가 지주와 소작농의 관계에 미친 영향을 재현하는 방식에 초점 맞출 때 민족 독립/해방의 주체들이 거는 기대와 좌절 양상을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이 과정에서 남성중심적 사회 질서로부터 배제되는 여성의 삶이 전면화된 의도도 함께 파악하기로 한다. 살펴볼 또 다른 주체 양상은 지식인이다. 일제식민지기의 지식인이 독립/해방의 주체로 표상되었다고 한다면, 해방기의 지식인은 여성 및 소작농의 실상을 개도할 문제로 인식하면서도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2. 독립/해방의 사상적 주체, 그 가능성

최정희의 작품 중 해방이라는 글자가 직접 등장하는 것은 평론 「朝鮮女性運動의 發展過程」²⁰⁾에서이다. 이 글은 사회주의 사상에 대한 최정희의 안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써, 여성해방을 말하는 맥락은 근우회와 관련이 있다. 글의 요지는 여성해방을 위해서는 계급적 투쟁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근우회는 대중계몽에 더 치우치고 있으니 이는 반성의 대상이

18) 김유영은 최정희의 첫 남편으로, 사회주의 사상에 입각한 연극 및 영화 활동을 하였다. 김유영, 「연애결혼 비화」, 『신여성』 7, 1933.1.1. 100~102면.

19) 최정희, 「뒷말 몇 마디」, 앞의 책, 221면.

20) 최정희는 「정당한 스파이」 발표 직후인 1931년 11월 『만국부인』(삼천리사)에 평론 「朝鮮女性運動의 發展過程」을 발표한다. 이 비평문은 근우회의 성격을 좌익과 우익뿐 아니라, 중립의 지대가 있음을 인식한 글로 평가받는다. 장원아, 「근우회와 조선여성해방 통일전선」, 『역사문제연구』 23, 역사문제연구소, 2019, 417면.

된다고 하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근우회는 1927년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합작한, 기독교와 사회주의 운동을 기반으로 조직된 단체이며 민족해방과 여성해방운동을 소임으로 한다.²¹⁾

「朝鮮女性運動의 發展過程」이 발표된 후 일기지는 이에 대한 반박문을 『비평』에 게재한다.²²⁾ 그는 이 글에서 최정희가 문제 삼는 ‘반성과정’을 1928년 본부 간부 측과 지회 대의원 사이의 권력 장악에서 비롯한 사건이지 근우회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²³⁾ 이때 일기지는 최정희를 “동지적 우정”, “맑쓰학도”, “동지적 친의” 등으로 호명한다. 일기자가 최정희의 의도를 1928년으로 소급하는 점이나, 또 친밀한 정으로

-
- 21) 근우회의 여성해방은 일제체하에서 민족해방을 대놓고 표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여성해방이 제시된 측면도 있고, 여성해방의 필요성이 요구된 데 따른 표방이기도 하다. 1927년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계열의 협동전선으로 창립→ 사회주의 계열의 주도, 기독교 계열 탈퇴, 활동의 협소화 → 신간회 해소에 따라 근우회도 해체라고 하는 도식이 보편적이지만, 근우회를 신간회의 연장선에서 보는 것이 아닌, 여성단체가 별도로 필요할 만큼 여성해방 및 민족해방에 대한 뚜렷한 목표의식이 있었던 단체로 보는 것도 이러한 성격 때문이다. 여기서 민족주의는 1919년 3·1운동 이전부터 항일운동을 전개해나갔던 계열을 뜻하며, 이들은 대부분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조직되었다. 근우회의 행동강령은 「근우회 대회에 행동강령과 의안」(『조선일보』, 1929.7.25. 2면)에 소개되어 있다.
- 22) 일기지는 양명(1902~?)을 포함하여 일제시기 매체에서 자주 확인되는 이름으로 누구인지 명확하지는 않다. 하지만 사회주의 사상에 경도된 사람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일기자, 「批判의 批判 朝鮮女性運動의 發展過程을 읽고 : 崔貞熙氏의 蒙을 啓함」, 『비평』 제1권 8호, 비평사, 1931.12. 63-65면.
- 23) 일기자가 소급하고 있는 1928년 전국대회는 당국이 근우회의 토의안을 문제 삼아 대회를 불허하자 근우회 본부에서 총독부와 교섭하고 토의안을 수정해 대회 허락을 받았던 사실을 동경지회가 비판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한다. 이 사건을 둘러싼 보편적인 해석은 근우회 내부의 권력 파쟁에 회의를 느낀 기독교계 민족주의 진영이 탈퇴하고, 이후 사회주의 여성들이 근우회의 주도권을 잡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장원아에 따르면, 기독교 계열의 탈퇴는 서울 일부 지역에서의 현상이며, 근우회가 해소될 때까지 기독교계를 주축으로 한 평양지회(YWCA기독교계와 사회주의계가 결합)는 적극적으로 근우회 일에 힘썼다. 평양지회의 농촌 계몽, 봉건적 민습 및 미신타파와 같은 활동이 근우회 행동강령으로 채택되는 등 역할의 공조가 이어진 데서 알 수 있다. 물론, 사회주의 계열이 전위적 조직론을 내세우고, 기독교계에서는 대중의 계몽에 주력하였던 원인이 근우회의 해체 내막 중 하나가 될 수는 있다. 장원아, 앞의 글, 412~414면.

써 동지라고 호명하는 등의 정황은 최정희의 사회주의 사상이 오랜 연륜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근거가 된다.

그동안 최정희의 초기 작품에서 집중적으로 드러난 사회주의 사상은 첫 번째 남편인 김유영의 영향하에서 형성된 단순한 포즈로 인식되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²⁴⁾ 그러나 1927년 「단천여청회발기 창립대회는 8월 8일에」²⁵⁾ 기사를 고려하면 그의 사회주의 사상의 연원은 재고될 수도 있다. 기사에 따르면 최정희는 1927년 7월 29일 그의 집을 단천여청회 발기대회 장소로 제공한다. 함남 단천²⁶⁾은 최정희가 유년시절을 보냈던 곳이다. 단천여청회가 근우회의 단천지회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근우회가 여자청년회 및 동우회 등을 모두 포섭한 점²⁷⁾을 고려하고, 또 '김동희'가 단천 근우회에서 꾸준히 활동했던 정황²⁸⁾을 참고할 때 직접적 관계의 여지가 없지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최정희가 「남포燈」²⁹⁾에서 '무산부녀야학', '근우회' 등을 직접

24) 최정희의 사회주의적 경향을 김유영의 영향하에서 찾는 대표적인 논의로 김연숙(앞의 글, 339면)이 있다.

25) 『동아일보』, 1927.8.3. 3면.

26) 최정희의 단천에 대한 기억은 「暴風에 쓸리는 나의 故郷」(『삼천리』, 삼천리사, 1931.12, 35-36면), 「처음 밝히는 나의 과거」(『한국문학가 수기전집』, 평화문화사, 1971, 328-329면) 등에서 언급된다.

27) 일제치하에서 여성의 조직체는 항일로부터 출발한다. 대표적인 비밀결사단체인 '송죽결사대'는 3·1운동 이전부터 활동하였다. 당시 여성들의 각성은 기독교 유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1920년대 초중반 사회주의 사상이 유입되기 전까지는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민족운동이 전개되었다. 여자청년회(이하 여청) 역시 기독교의 영향권 아래 민족운동과 농촌 및 여성 계몽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1924년 사회주의 여성단체인 '조선여성동우회' 및 '조선청년총동맹'의 결성으로 여청의 지도권을 장악, 기존의 여청은 사회주의적 여청으로 변모하게 된다. 그리고 사회주의적 여청이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이 궤에서 단천여청회는 이해될 수 있다. 1920년대 여청회의 변모 양상은 이송희, 「부산지역 신지식층 여성들의 등장과 단체활동 - 1920년대 여자청년회 활동을 중심으로」(『여성과 역사』 3, 2005, 105면)를 참조.

28) 김동희는 근우회 중앙간부로 활동했는데 관련 내용은 「근우회의 중앙간부선거」, 『조선일보』, 1929.7.31. 2면.; 「단천근우대회」, 『조선일보』, 1930.5.29. 6면 참조.

29) 최정희, 「남포燈」, 『문학타임즈』, 1933.2. 10면.

명시하고 있는 점은 이러한 활동과의 관계성을 시사한다. 하지만 최정희가 1927년에 단천에서 살고 있었는가 하는 점, 또 동명이인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³⁰⁾ 최정희는 이 당시 숙명여고보 내지는 중앙보육학교에 적을 두고 있어 서울에서 살고 있었다. 그렇다고 하여 단천에 친척이나 가족들이 남아있었을 확률도 없지 않으므로 이와와 연결고리는 배제될 수 없다. 「나의 문학 소녀시절」(『동아일보』, 1958.7.2.)을 살펴보면 일본 동경에서 돌아온 후 고향 단천에서 머물렀다는 내용이 확인된 때문이다. 또한, 최정희는 중앙보육학교 졸업 후 1929년 경남 함안 유치원의 보모로 발령³¹⁾ 받아 약 3개월간 근무하였는데, 거기서 함안청년동맹 여자부장으로 이름을 올린다.³²⁾ 경남 함안 유치원은 사회주의 청년들이 무료로 운영하던 곳으로, 최정희는 “예배당에서 하는 유치원이 싫어서 독특한 사회 유치원을 선택”³³⁾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만약 이와 같은 정황들이 받아들여진다면 최정희의 사회주의 사상의 유입통로는 김유영이라기보다 오히려 숙명여고보나 중앙보육학교와의 영

30) 박죽심은 최정희와 근우회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연구자이다. 그럼에도 ‘단천여청회’ 발기를 최정희의 근우회 활동으로 단정하는 점은 좀 더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 사료한다. 이런 점에서 김복순은 ‘단천여청회’가 오히려 근우회 통합에 반대하는 발기회라는 관점을 취한다. 최정희의 사회주의 독서경험이 동경 생활에서 시작되었다는 증언을 신뢰하기 때문에 1927년의 신간회나 근우회 활동을 속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본 글이 볼 때 김복순의 논리도 일정 부분 인정되긴 하지만, 근우회 통합에 반대하는 발기식이라는 근거 역시 추정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그의 논리도 인정되기 쉽지 않다. 본 글이 새롭게 제시한 자료인 함안 유치원보모 시기 ‘함안청년동맹’에서 활동한 사실은 사회주의 사상에 이미 긍정적이었던 최정희의 태도를 확인할 근거가 된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사회주의 관련 독서경험은 좀 더 확고한 사상적 기반 구축의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본다. 박죽심, 「최정희 문학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0, 3-4면.; 김복순, 앞의 책, 232-233면.

31) 「지방인사」, 『조선일보』, 1929.4.17. 4면.

32) 「함안청맹집행」, 『조선일보』, 1929.5.29. 4면.

33) 최정희, 편집부 엮음, 「가난과 눈물의 시대를 이겨내고」, 『이야기 여성사 2』, 여성신문사, 2000, 280면.

향 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³⁴⁾ 최정희가 거쳐 간 숙명여고보 학생들은 1920년대 초부터 교육내용, 시설개선 등을 요구하면서 맹휴를 벌여왔고, 1926년 6·10 만세운동 이후 민족해방주도세력으로 두각을 나타냈다. 그 연장선에서 1927년 학교 기숙사 사감으로 부임한 일본인에게 반발하고 청탁의 부당함, 부당한 교육 등의 개선을 요구하면서 휴맹의 방식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한 바 있다.³⁵⁾ 그리고 최정희가 재학한 중앙보육학교장 박희도는 '신흥청년동맹원 방두파 사건(1928)'으로 검거되는 등 당대 사회주의 사상과 연루되어 있었다.³⁶⁾ 최정희 소설에 등장하는 여고 동창생이 '혁명가'³⁷⁾로 그려지는 것도 자신이 경험했던 학교 분위기를 반영하는 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34) 1920년대 중반 이후 확대된 사회주의 운동은 학생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독서회 등의 비밀결사 조직으로 항일운동을 지속한 바 있다. 특히 1929년 11월 광주학생운동을 계기로 전국적 항일학생운동으로 확대되었고, 서울과 각 지방에서 맹휴 및 가두 시위행사를 펼쳤다. 12월 2일에는 식민지 교육제도 절대 반대, 치안유지법 즉시 철폐 등을 요구하며 학생들의 총출거는 충천하였다. 이때 숙명여고보, 중앙보육학교도 이들 학교와 함께 저항한 것으로 확인된다. 「각 학교가 계속 휴학을 선언」, 『동아일보』, 1929.12.28. 3면; 「광주사건의 의의」, 『동아일보』, 1929.12.29. 1면; 「사건일지(2)」, 『동아일보』, 1929.12.29. 2면.

35) 학생들의 맹휴는 192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교육내용, 시설개선, 교사 질의 향상을 요구하는 문제로 전개된다. 1926년 6·10 만세운동 이후 맹휴 건수는 급속히 늘어나는데, 이때 학생층은 민족해방운동 주도세력으로 부각되며, 1927-1928년 절정에 달한다. 이의 연장선에 있었던 1927년의 숙명여고보 맹휴는 단순히 한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교육 현실과 관련되는 것으로써,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간회, 근우회를 위시한 각 사회단체가 협력한 바 있다. 「숙명여고보생 총동맹휴교단행」, 『조선일보』, 1927.5.27. 2면; 강혜경, 「숙명여고보 맹휴사건으로 본 식민지 여성교육」,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7,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0.

36) 박희도 교장 추천으로 최정희가 『삼천리』 소속 기자로 첫발을 내딛게 되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박희도는 기독교계 인사로 기미년 독립선언 33인 중 한 사람이며, 1927년 신간회에 참여하였다. 박희도 검거 기사는 「경찰부 전후 검거 정제달 외 십사명」, 『조선일보』, 1928.10.21. 2면 참조.

37) 「人脈」에서 해봉은 “사상이 농후해서 반우회거나 무슨 모임이 있을 때면, 동무들 많이 모인 데서 종종 자기는 독신으로 XX가가 된다”라고 공표한다. 여기서 XX는 당대 검열의 흔적으로써, 작품 전체 맥락을 고려할 때 혁명가로 독해될 수 있다. 최정희, 「人脈」, 『문장』, 문장사, 1940.4. 8면.

이러한 사실들을 근거로 최정희의 사회주의적 경향은 훨씬 오랜 연륜과 독립적이고 확고한 인식 체계에 토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최정희가 김유영과 만났던 1930년 시점으로 사회주의의 경도를 파악하는 일반적인 견해는 최소한 3년 이상의 소급 적용 가능한 것으로써, 남성 주체의 영향 관계 속에서 여성의 사회 활동을 해명해오던 관점은 재고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한다. 최정희의 이러한 주체적인 신념들은 당면한 현실과 접목되면서 작품 속에서 다양한 주체들을 만들어낸다. 독립/해방의 의미도 이와 같은 연장선에서 살필 수 있을 것이다.

3. 삼분병작제와 독립/해방 주체의 기대와 좌절

독립/해방은 1945년 8월 15일에 대한 최정희의 표현³⁸⁾이긴 하지만, 해방 정국뿐 아니라 오늘날도 8·15는 독립/해방/광복' 등으로 제각각 호명되고 있다. 이는 각 용어에서 양산되는 담론 중 어디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른 현상일 수 있다.³⁹⁾ 서로 다른 개념과 배경을 가진 용어를 나란히 병치하는 전략은 최정희 작품에서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요소로써, 식민지기와 해방기를 연속선상에서 이해하려는 데서 기인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시기의 연속성은 당대 해방을 담지하는 다른 작가의 작품에서도 확인된다. 즉 당의 논리 혹은 정치적 입지를 대변하는 과정에서, 또 통치 권

38) 최정희가 작품 속에서 기재하고 있는 정확한 표현은 독립(해방), 독립해방, 독립(해방)이며, 표현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이 글에서는 독립/해방으로 표기하였다.

39) '독립/해방/광복'은 사전적 의미로 보자면, '해방'은 노예신분이 전제된 말, '독립(운동)'은 독립국이라는 것을 항거하고 주장하는 운동, '광복'은 빼앗긴 주권을 항거하여 되찾은 것을 의미한다. 이를 근거로 1945년은 해방이된 날, 1948년 남한단독정부 수립은 독립을 성취한 날로 주장하는 논의(이동복, 「8·15는 아직 '광복'의 날이 아니다-통일'까지는 '해방'과 '독립 기념일'로 기념하자」, 『월간군사』 8, 월간군사저널, 2021, 8-10면)도 있다. 하지만 일제치하에서 주권을 되찾기 위한 독립운동이 국내외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사실은 '해방'의 의미와 함께 상기되어야 할 일이라고 사료한다.

력의 자리 바꾸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⁴⁰⁾ 최정희는 다양한 주체들을 내세우고 실생활에서 독립/해방이 갖는 의미에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덕소의 마을 주민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독립/해방에 걸었던 기대와 또 그 좌절을 살펴보고자 한다. 덕소를 배경으로 한 소설에서는 삼분병작제를 둘러싼 지주와 소작인과의 갈등이 공통적 요소로 드러난다.

「風流잡히는 마을」(67~68면)에는 광복의 희열을 만끽하는 마을 사람들의 행동을 세 가지 형태로 묘사하고 있다. 첫째는 만세를 부르며 행진하고, 둘째는 주재소와 면사무소를 때려 부수며, 셋째는 밤마다 모여 연설을 한다. 이들이 보여주는 행동은 그동안 억눌렀던 울분을 한꺼번에 날려버리는 적극적 의사의 표현이자 더 나은 세상의 도래를 믿는 의지의 발현이다. 마을 사람들의 울분 대상은 주재소, 면사무소로 구체적이며, 그 날의 사건 이후 직원들은 광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마을 사람들에게 최대한의 친절함으로 확인시켜준다. 세상이 달라졌음은 마을에서 왕 노릇을 하는 지주 서흥수의 태도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서흥수가 마을 사람들에게 쌀을 내놓는다는 것은 그동안 자신의 뒤를 봐 주던 왜놈 및 면사무소 직원들과 마을 사람들이 동등함을 의미한다.

이때 마을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해방의 의미는 독립이다. 해방이 노예 상태에서 벗어남을 강조한, 타자성에 좀 더 방점이 찍힌 단어라고 한다면, 독립은 주체성이 전면에 놓이기 때문에 의지가 더 강조되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독립은 일제치하에서 전개했던 항일운동과 기미년 3·1운동을 환기하는 단어로, 식민지 조선의 해방을 독립으로 환치하는 점은 민중

40) 김민수는 해방기 작품을 대상으로 '해방'의 다층적 국면을 분석하는데, 이태준의 「해방전후」를 인민개념에 기초한 조선문학가동맹의 민족문학론을 내면화한 소설로, 김동리의 「급류」(1949)와 「해방」(1950)은 임시정부의 논리를 대변하면서 좌익세력을 적으로 규정하고 대타의식의 논리적 기틀로 삼는 소설로, 염상섭과 채만식은 식민지기와 미군정하가 차별화되지 않는 착취구조의 연속성을 들춘 사례로 분석한다. 김민수, 「해방전후의 역사적 전환과 문학적 인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22, 56~142면.

과 지식인의 반향이 다시 한번 계기로 작동할 것을 염원하는 의미로 볼 수 있다.

①(생전 처음일이다.) 세상 정세에 캄캄한 그들이 국사를 논한대야 대수로울 것은 못되었다. 기껏해서 정계의 인물 몇을 싸돌고 하는 이야기였다. ……(중략)…… 토지추수의 삼분병작제(三一制)가 발표되기는 추수를 얼마 압둔때였다. 농민들은 **조선독립(해방)**이 되었다하든 때와같이 기뻐했다. 그때보다 더한층 기뻐할지 모른다. **독립해방**이 된우에 또 농사꾼들을 더 먹으라고하니 이 얼마나 기쁜 일이드냐.

-「風流잡히는 마을」, 68~71면(강조-인용자, 이하 동일).

②봉수의 외가에서는 삼분병작은 그만두고 재래에 하던 반작제를 실행하겠노라고 손을 비벼 가며 빌어도 그 지주는 듣지 않고 있었다고 한다. ……(중략)…… 반작도 안된다고 머리를 돌리던 지주는 아들 없는 것을 구실로 아름다운 젊은 과부 봉수의 어머니를 자기에게 주면 땅을 그냥 부치게 하겠노라고 하였다고 한다. 지주의 이러한 처사는 봉수의 외가에 다시 없는 기쁨이었다고 한다. 「저이같은 것의 자식으로 황송하읍니다.」라는 말과 함께 어린 과부 딸을 당장 주어버렸다고 한다.

-「봉수와 그 家族」, 151~152면.

③무당의 거짓말이 시작되는 판이었다. 점례의 신랑 될자 복이가 고개를 푹 숙인다. 무당은 점례가 혼인을 정하고 죽었으니 이팔 청춘이라 하는 것인데 점례는 이팔청춘이 못되는 열네살의 소녀가 아니었든가.

-「占禮」, 31면.

최정희의 해방기 소설에서 독립의 의미는 민족 광복의 희열을 반영하는 것만이 아니다. ①에서 보여주는 독립은 농민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소작농이라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고 할 수 있다. 삼분병작제가 시행된

다는 것은 소작농이 그동안 지주에게 부당한 처사를 받아왔던 사실을 인정받는 것과 같은 의미이며, 따라서 일대 사건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삼분병작제는 신탁통치기에 실행되었던 토지개혁법으로써, 지주계급을 약화할 방편으로 소작료 비율을 낮춘 법령이다.⁴¹⁾ 제도적 뒷받침에 힘입은 소작농들은 독립/해방기에 비로소 삶의 주체자로서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독립/해방기의 삼분병작제는 새로운 가능성의 계기와 다르지 않다.

삼분병작제는 최정희의 해방기 소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레퍼토리이다. 그러나 그가 주목하는 삼분병작제란 ②,③에서 알 수 있듯, 소작농들을 더욱 피폐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즉 ②,③의 맥락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토지를 소유할 것이냐의 문제가 혁명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와 그 좌절의 역사적 사실과 합치한다.⁴²⁾ 최정희는 삼분병작제의 실행 후 소작농들이 소작권마저 떼일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자발적으로 지주의 공출 할당량까지 분담하는, 실질적 폐해의 주체가 되었던 사실⁴³⁾을 작품 속에 반영한다.

소작농이 삼분병작제를 반납하고 이분병작제로 회귀하는 과정은 미군정체제가 일제체제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판단과 새로운 것보다 익숙한 것에 중속되려는 행동으로 이해된다. 소작농들의 이러한 태도는 일제와 미군정이 서로 자리 바꾸기만 했을 뿐, 해방 국면은 여전히 식민상태에 놓여있다는 사실의 환기와 다르지 않다.⁴⁴⁾ 마을 주민들이 “독입이 한번

41) '삼분(불)병작제(31제)'는 미군정이 1945년 10월 5일 〈최고 소작료 결정의 건〉을 공포하고 시행한 토지개혁법으로, 수곡 총액의 1/3을 넘어서는 소작료를 받는 지주에게는 군사 재판소에 넘겨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전에는 '조선농지령'(1934)에 따라 소작료의 상한을 설정하지 않았고, 전시입법에서는 '소작료통제령'에 의해 소작료를 동결했다. 그러나 일제 패망의 결과로 전시법령은 폐기되었고, '조선농지령'이 계속 유효했다. 이은희, 「농지개혁의 의미와 한계」, 『법학연구』 21,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167면.

42) 장세진, 「치안과 정치 사이에서-해방기 빈곤 대중의 존재론」, 『현대문학의 연구』 56, 한국문학연구학회, 2015, 280-281면.

43) 이혜숙, 『미군정기 지배구조와 한국사회』, 선인, 2008, 330-332면.

더 왜아해”⁴⁵⁾라고 말하는 것 역시 이런 맥락에서 고려될 수 있다.

이를 전제로 텍스트를 좀 더 살펴보자면 ②에서 소작권이 떼인 봉수의 외기는 그의 딸을 지주에게 갖다 바칩으로써 소작권을 유지하고 궁핍을 모면할 방도를 마련한다. 즉 삼분병작제는 오히려 그들을 궁지에 몰아넣는 법이자 스스로 굴종하게 만드는 제도로 작동될 뿐이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곳은 과부와 아이가 희생 대상이 된다고 하는 지점이다. 이들 모자의 가족 해체는 삼분병작제에서 기인하고, 남성중심사회에 의해 한 번 더 희생자로 낙인되는 이중구속⁴⁶⁾ 상태에 놓여있다.

이중구속의 양상은 ③에서도 확인된다. 점례는 지주 허승구가 던진 돌에 맞아 앓다가 죽지만 누구 하나 죽음의 원인을 발설하지 않는다. 다만 소작농들은 지주의 눈 밖에 날까 봐 자진해서 굶신거리며, 종속의 관계를 민습의 형태로 받아들일 뿐이다. 자리걸이에서 보여주는 무당의 행태는 점례의 죽음이 왜곡되는 과정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점례가 지주에게 희생되었고 마을 사람들에 의해 죽음의 진실조차 왜곡된 주체라는 점을 부정할 수 없게 한다.

하지만 최정희는 해방기 소설에서 제도적 모순을 사실적으로 반영하고 그들의 독립/해방을 문제 삼는 것에 그친다기보다는 판을 뒤집는 주체들을 내세워 일말의 희망을 모색하기도 한다.

① 「이거 야단났군. 동네에 변괴가 생길 장본이야…… 어서 물을 - 물

44) 김복순은 최정희의 해방기 소설을 반미작품 계보에 위치시킨다. 김복순, 앞의 책, 122-123면.

45) 『風流잡히는 마을』, 77면.

46) 이중구속은 가야트리 차카라보르티 스피박의 서발턴을 염두에 둔 용어이다. 서발턴은 안토니오 그람시가 처음 사용한 이후 하층민, 또는 하위주체의 의미로 확장 사용되었다. 스피박은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를 통해 사회적 약자로서 권력 구조로부터 배제되고 억압당하는 사람들, 정치 담론에서 민중이나 계급 등의 말로 포섭되지 않는 종속적 주체의 재현 불가능성을 설명한다. 가야트리 차카라보르티 스피박 외(태혜숙 역), 로절린드 C.모리스 엮음,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 그린비, 2019, 104-115면.

을 퍼 내자. 물을……」 고령집 영감이 싸움질에 눈이 팔린축들을 서들면서 두려운 낯색을 짓습니다. 여기에 순보 영감은 「암닭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더니 아낙네들이 저리 성악 스텝구서야 동네가 무사할 수 있담……」 하고 입심을 돋웁니다.

-「우물치는 風景」, 129면.

②목수영감의 아들은 해가 한가운데 떴을 -그림자들이 납작해지는 때 단 혼자서 서흥수가 그 아들과 손자와 친척들과 그아들 친구들과 그리고 원 마을 사람들에게 절을 받고 있을때에 서흥수의 앞에 참 호화찬란하게 채려 놓인 회갑 큰상을 부셔버렸다 하였다.

-「風流잡히는 마을」, 84면.

①의 「우물치는 風景」은 마을의 습속인 우물고사를 전면에 배치하고, 자신들의 가난과 부정한 원인을 여자의 탓으로 돌리는 남성중심적인 공동체를 문제 삼는다. 삼분병작제로 인해 소작권을 떼인 학수엄마와 소작지를 매입한 몽분엄마의 갈등을 고조시키면서 전통적 사회 질서의 장을 난장으로 만들며, 남성 주체들에 의해 강요된 여성의 억압된 생활상을 고발한다. 이는 질서를 균열 내는 주체가 다름 아닌 여성이라는 점과 평생 노동을 하는 데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 원인이 지주 최주사에게 있다는 사실을 부각한다는 점에서 독립/해방의 기대가 여전히 유효한 사건임을 명시한다.

「風流잡히는 마을」은 닭과 족제비의 관계를 소작농과 지주의 관계로 알레고리화한 점이 돋보이는데, ②에서는 주종의 관계를 뒤집는 주체를 강조하면서 일말의 희망을 제공한다. 즉 삼분병작제에서 출발한 마을 주민들의 기대가 좌절을 겪게 되는 양상을 통해 종전보다 더 못한 삶을 조명하면서도, 중국에는 다시 한번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사건을 제시한다. 이때 서술자는 행동하는 주체에 대해 “나는 그의 사상(思想)이 어떤 것인가

지 모른다. 진보적 민주주의-마을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공산(共産)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민주주의-마을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이승만박사 주의인지, 이야기를 들어 본일이 없기때문에 아주 몰은다.”⁴⁷⁾라고 말함으로써, 그 사상의 경사 너머에 있는 독립/해방이 여전히 요구되는 사회라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독립/해방이 달성할 목표로 강조되는 점은 당대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독립운동의 이념과 방법의 차이를 넘어 민족 협동 전선을 결성해 독립운동을 펼쳤던 1920년대 후반의 신간회 및 근우회 활동의 연장선에서, 또 일제말기에 결성된 민족통일전선의 연장선에서 이해될 수도 있다.⁴⁸⁾

덕소를 배경으로 한 독립/해방의 의미가 주체 양상에 따라 미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최정희의 페르소나라고도 볼 수 있는 지식인 서술자⁴⁹⁾의

47) 『風流잡히는 마을』(85면)의 내용은 단행본 『風流잡히는 마을』(45면)에서 “나는 그의 사상(思想)이 어떤 것인지 모른다. 마을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공산(共産)인지 그렇지 않으면 마을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이승만 박사 주의인지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몰른다.”로 개작된다. 즉 “진보적 민주주의”와 “그냥 민주주의”를 생략한 것은 공산과 반공산의 차이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효과가 있는데, 단행본 출간 시점에는 이미 반공을 국가이념으로 한 남한단독정부가 수립된 이후라는 점을 고려하면 목수 아들의 행동은 국가이념에 종속되지 않은 독립적 저항으로 읽힐 여지가 있다. 특히 이 행동 후 목수 아들이 순사에게 붙잡혀 가는 것은 여전히 독립/해방이 요구되고 있는 사회임을 시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48) 한국의 민족주의 개념은 한말 제국주의 침략에 항거한 저항의 성격을 지닌다. 이후에는 시기나 방법의 변화에 따라 민족주의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그리고 좌우의 이데올로기의 분파로 민족주의가 분화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렇다 하더라도 반일 민족주의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었다. 한편, 반일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시기에는 좌우익, 중간파 등이 결합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김기훈, 「한국민족주의운동의 이념적 분화」,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128면). 일제말기에 대한 논의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즉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국내외 모든 독립운동세력은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전략 전술이 일치”되어 갔던 시기로, “독립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향해 국내 국외 사회주의 민족주의 등 지역 및 이념의 구별을 뛰어넘어 통일할 수 있는 광범위한 민족통일전선 결성의 객관적 조건이 형성”되었으며, “1944년 일제는 조선인 사상 동향의 특이점이 민족주의의 고조라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다. 정병준,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 광복 직전 독립운동세력의 동향』, 한국독립운동사 편찬위원회, 2008, 135-136면.

49) 류진희는 작중 화자를 최정희의 페르소나로 본다. 이는 본 글도 동의하는 바이다. 류진희,

변사적 사설⁵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요컨대 독립/해방의 의미가 민족 광복뿐 아니라, 소작농-지주, 여성-남성중심사회 등 법과 습속으로부터의 독립과 해방을 강조하는 점은 하위주체에 대한 지식인 서술자의 관찰에 따른 구분인 바, 이에 지식인을 둘러싼 독립/해방은 어떤 양상으로 표출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4. 남한단독정부수립과 독립/독입/해방

최정희는 해방기 소설 중 덕소를 배경으로 한 작품에서 주로 지식인 서술자를 내세운다. 지식인 서술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출신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는 외지로부터 유입되었으며, 자작농으로 빈곤하지 않은 자이다. 또 그는 미군정 체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견지하고 있으며, 미군정과 유착 관계에 있는 마을 지주들과 왕래하지 않는다. 반면 그는 마을 소작농들과는 비교적 스스럼없이 지낸다. 이러한 모습은 그가 소작농이나 여성들의 처지를 인정으로 바라보고 그들의 입장에 서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는 마을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거나 지식인으로서 추앙받거나 하지 않는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단지 “아즈먼네들”⁵¹⁾중 한 사람일 뿐이고, “애기어머니”⁵²⁾에서 “선상님”⁵³⁾으로 호명되는 정도의 존재일 뿐이다. 그에 대한 인식이 미미한 이유는 마을의 대소사에 앞장서지 않았거나 자신을 내세울 처지가 못 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 지식인 서술자를 최정희의 페르소나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자면, 덕소는 그가 일제의 부역

앞의 글, 451면.

50) 이병순, 앞의 글, 134면.

51) 「우물치는 風景」, 115면.

52) 「風流잡히는 마을」, 79면.

53) 위의 글, 84, 85면.

을 피해 몸을 낮추고 있었던 곳이기도 하다.

문제는 해방이 된 후에도 그 태도에 변함이 없다는 데 있다. 지식인 서술자가 연설조로 말이나 생각을 떠올린다는 것⁵⁴⁾은 연설에 익숙한 사람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불의가 무엇이고 불합리가 무엇인지, 우매한 농민들이 무엇 때문에 가난하고 고통 받는지에 대한 주장이 논리적인 것도 같은 궤에서 이해된다. 그런데도 답답할 정도로 마을 사람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와 같은 궁금증은 최정희가 생각하는 지식인상을 살펴볼 때 해결될 수도 있다.

최정희가 구상하는 지식인상은 식민지기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에서 구체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해방기 소설에서는 1948년 남한단독정부수립 이후 작품에서 두드러지게 포착된다. 이 무렵은 또 최정희가 덕소에서 서울로 이사한 시기⁵⁵⁾라는 점에서 소설 속의 공간 역시 달라진다. 이런 정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해방기 소설에서 독립/해방을 기술하는 양상을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토지주수의 삼분병작제(三一制)가 발표되기는 추수를 얼마 앞둔 때였다. 농민들은 **조선독립(해방)**이 되었다하든 때와같이 기뻐다. 그때보다 더한층 기뻐을지 모른다. **독립해방**이된우에 또 농사꾼들을 더 먹으라고 하니 이 얼마나 기쁜 일이드나.

-「風流잡히는 마을」, 71면.

② 정자나무 아래 이승만 여운형 김구씨등을 몰두하던 그들은 **독입이 한번 더 돼야 해** 하고 뇌었다. **독입이 무엇이고 해방이 어떤 것조차 모르고 하는 말**이라 치드래도 그들의 이말을 거저 흘려 버릴수는 없

54) “내가 이렇게 연설하듯 말을 하려고 하면서도 아직 하지 못하고 주저하면서 드레박 줄을 잡고 왔다 갔다하고 있는데”, 「우물치는 風景」, 133면.

55) 「문화인 동정」(『경향신문』, 1949.7.4. 2면)을 살펴본 결과 최정희는 명동에 ‘보계수 다방’을 차린다.

는 것이다. ……(중략)…… 진정 그들은 **독립(해방)**이 다시 돼야 한다고 느끼기는 하나, 그 **독립**이라는 것이 어떠한 형태로서 그들 앞에 나타날 것은 짐작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風流잡히는 마을」, 77~78면.

③ 『애 순아, 너 **독립**이 언제되는지 아니?』

씨르램이가 다시 요란해졌으나 봉수의 소리는 또렷이 들렸다.

『**독립**이?』

『**독립**이 되문, 올 아버지가 날더러 장갈 디레 준댜서. 난 너한테 갈테 다.』

-「꽃 피는 季節」, 22~23면.

①~③은 1947년 발표지의 표기법으로써, 독립의 표기가 독립/독립으로 구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①은 서술자가 사용한 말, ②,③은 작중 인물들의 말, 또는 그들의 말을 서술자가 옮긴 말에 해당한다. 한 단어의 이러한 사용법은 서술자인 ‘나’와 마을 사람들의 구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일 수 있는데, ‘오래지 않아 가난하고 우매한 농민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와서 글을 모르는 자가 없게 된다⁵⁶⁾’라고 하는 대목을 염두에 둔다면, 우매한 농민인 문맹자와 ‘나’의 구분을 위한 표기법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표기법은 단순 오기로 볼 여지도 없지 않다. 1949년 7월에 출간한 단행본 『風流잡히는 마을』⁵⁷⁾에는 「風流잡히는 마을」과 「꽃 피는 季節」이 모두 수록되었는데, 「風流잡히는 마을」에서는 독립이 독립으로 모두 수정 표기되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하지만 또 「꽃 피는 季節」에서는 독립이 수정 없이 표기되고 있으므로 독립과 독립의 구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56) 「風流잡히는 마을」, 85면.

57) 『風流잡히는 마을』, 34-35면, 165~166면.

여기서 문제는 「꽃 피는 季節」의 개작 양상으로, 주인공 이름이 봉수→장수로 바뀐 것 외에 내용의 변동은 없지만, 창작 연월일이 변경되었다는 데 있다. 즉 최초 발표지인 『새한민보』(1947.11. 상순호)에서는 “1947년 10월 31일”로, 『風流잡히는 마을』(아문각, 1949)에서는 “1948년 9월”로 수정된다.⁵⁸⁾ 창작 연월일을 변경함으로써 거두는 효과는 독립/해방의 의미가 민족해방에서 남한단독정부수립(이하 단정으로 표기)을 지칭하는 것으로 바뀌어 읽힐 가능성이 있다. 주지하다시피 1948년 8월 15일의 단정은 반공주의가 지배 이데올로기로 확립되면서 민족주의가 강조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해방기의 다양한 사상적, 이념적 경향들이 더 이상 존립하기 어려워졌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전향의 문제가 다시 대두될 수 있음⁵⁹⁾을 함의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최정희는 이데올로기의 혼돈 속에서 주류에 편승하기 위한 전략으로 창작 연월일을 수정한 것일까. 이승만의 단정을 위한 행보는 1947년에 본격화⁶⁰⁾되었기 때문에 추이를 예민하게 관망하던 지식인들

58) 『風流잡히는 마을』에는 총 11편이 수록되었고, 그중 해방기에 창작된 소설이 10편이다. 그리고 작품이 끝날 때마다 창작 연월을 기록해두었는데, 「꽃 피는 季節」만 최초 발표일보다 일 년 가까이나 늦은 시기로 표기하고, 나머지 작품은 모두 최초 발표일보다 그 시기가 앞서거나 같다. 이러한 차이는 최종수정일을 표기해놓은 것에 불과한, 단순한 행위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수록작품 모두 개작 흔적이 있기 때문에 한 작품에만 최종수정일을 기재했다는 논리는 일관성이 없다. 따라서 이 지점은 분명히 눈길을 끄는 행위로 볼 수 있다.

59) 문학사에서 첫 번째 전향 사건은 1934년 카프맹원들에 대한 일제의 전향 조치인데, 이때 최정희는 신건설사 사건에 연루되어 옥고를 치른 바 있다. 최정희의 옥고는 카프 맹원이 아니었음에도 신건설사 조사 과정에서 1931년 김유영과 함께했던 ‘이동식 소형극장’ 활동이 프로 극단의 민중 계몽운동과 관련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판단된다. 이후 최정희의 작품 세계는 「地脈」, 「人脈」, 「天脈」 등으로 대표되는 모성성 강조의 경향으로 전환한다. 최정희의 ‘이동식 소형극장’ 이력은 김재철이 1939년에 쓴 「各地에 날어나는 傾向劇」, 『조선연극사』, 학예사, 1970, 194면 참조.

60) 1947년 4월 이후부터는 단정 수립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이 펼쳐졌는데, 이승만은 대미로비를 펼쳤을 뿐 아니라, 이 시기 미국은 소련 봉쇄 정책을 가시화하면서 좌익계에 대한 탄압을 노골화한 면이 있다. 여운형·장덕수 등이 극우 단체인 백의사의 멤버에게 암살당한 점이나, 미군정에 의해 언론과 예술 분야에서 좌익 제거 작업이 전개되었던 사실들은 이를 뒷받

이 단정 전에 이미 행동 및 발언에 신중하게 처신했던 사실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

하지만 사상적 혼란이 가속화되던 1947년 7월, 곧 해방 후 2년여 만에 작품을 제출하기 시작한 최정희는 한국전쟁 발발 전까지 당대 여성 작가 중 가장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면서⁶¹⁾ 작품 곳곳에 식민에서 해방되었음에도 청산되지 않는 잔재를 부각한다. 또한 일제와 미군정이 자리 바꾸기에 불과하다는 일관된 태도를 보여준다.⁶²⁾ 이는 미군정이 주도한 식량 배급 정책⁶³⁾ 및 토지개혁법이 지주를 제외한 대다수에게 불합리하게 작용했다는 메시지를 반복하는 점이나 그 결과 지주와 소작농의 관계가 해방 전보다 나아진 게 없을 뿐 아니라 더 힘들어졌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실정과 맞지 않는 법을 문제 삼는 장면이 잘 나타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들을 누구보다 잘 분별하는 지식인 서술자가 행동하지 않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는 점은 당대 지식인의 태도를 문제시하면서 지식인에게 거는 기대에 균열을 가하는 것이라고 여겨지며, 지식인 서술자가 최정희의 페르소나라는 논의를 수용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스스로 언행 불일치한 모습을 고백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 창작 연월일을 변경함으로써 얻는 효과란 단정에 거는 기대로 단순화하기보다는 오히려 또 한 번 독립/해방이 필요한 사건으로 단정을 위치시

침한다. 또 미국은 단정 수립을 위해 각 도를 순회하며 여론조사뿐 아니라 선전 활동을 펼쳤다. 강준만, 『한국현대사 산책 1940년대 편 2권』, 인물과 사상사, 2005, 25~74면.

61) 류진희, 앞의 글, 444면.

62) 김복순, 앞의 책, 111면. 일제와 미군정의 자리 바꾸기에 불과하다는 논리는 같은 시기에 활동한 채만식의 「민족의 죄인」(『백민』, 1948.10~11)에서도 확인된다. 민족의 해방 소식을 소개지에서 맞은 점이나 일상 속의 해방을 다루는 점 등 최정희와 공유되는 면이 없지 않다. 이러한 점은 다른 논의에서 심화시킬 수 있으리라 본다.

63) 쌀 배급 정책을 꼬집는 대목은 「風流잡히는 마을」의 목수 영감을 통해 드러나는데, 그는 식량 부족으로 채독에 걸리고, 양옥수수를 사다 먹고 설사병에 걸린다. 당대 양옥수수는 식량 배급품이었음에도 서울 시장에서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었다. 그 외에도 「淸涼里역 근처」에서 쌀이나 숯 등을 몰래 내다 파는 모리배들의 행태를 등장시킨다.

키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최정희가 생각하는 이상적 지식인이란 어떤 모습일까. 이는 단정 이후 제출한 작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정준세는 학교를 졸업하고 나와서 고등문관 시험에 파쓰를 해서 변호사가 되고 송석구는 전혀 직업을 가지지 않고 사회운동을 하려 들었다. ……(중략)…… 정준세가 누구 누구하는 **민족주의자들이니 무슨 농민조합 사건이니 하는 사건의 주모자**를 들고 나서서 법정에서 변론을 하게 될 뿐 아니라, 또 그런 사람들 가족들을 경제적으로 보살펴주는 일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서부터 유치장과 감옥에 자주 드나들게 되고

-「靑塔이 서 있는 洞里」, 52~53면.

「靑塔이 서 있는 洞里」는 일제식민지기인 1920년대부터 해방기까지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는데, 주동인물인 동욱의 부모는 식민지기 지하운동을 하던 엘리트들로 잦은 감옥 생활이 원인이 되어 결국 병사한다. 고아가 된 동욱은 변호사인 정준세가 양육을 자처함으로써, 서울에서 생활하게 되고 보통학교부터 전문학교 과정까지 밟게 된다. 정준세는 동욱의 아버지인 송석구와 죽마고우로서, 소학, 중학, 대학을 함께 다닌 사람이다. 정준세의 됄됨이는 텍스트에서 확인되듯 사리사욕을 채우는 변호사가 아니라 의로운 일에 힘쓰고 돈 없는 사람들을 변호하는 일을 한다. 특히 백인결사대 사건, 학병 반대, 또 농민조합사건 등으로 인해 잦은 감옥 생활과 고문을 견디다가 생을 마감한다. 이로 미루어 식민지기 지식인은 해방기의 우유부단한 지식인과는 다르게 민족의 독립/해방을 위해 신념을 굽히지 않고 목숨을 희생하는 자들로 표상된다.

이들 지식인은 일제식민지기의 실제적 사건과 결합해 나타남으로써 그 사상적 경사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주목되는 것은 농민조합사건이다. 텍스트의 농민조합사건은 1920년대 후반 일제의 삼립령에

반발하여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농민운동, 즉 1928년 이후 공산주의자들의 농민운동 지도 강화에 따라 항일투쟁 성격이 고취되었던 사건을 연상케 한다. 구체적으로는 대표적인 농민운동으로 꼽히는 '단천농민조합사건'이나 '성진농민조합사건'을 떠올릴 수도 있다. 주지하다시피 성진과 단천은 최정희의 나고 자란 고향이다. 물론 '단천농민조합사건'이 1930년 7월에, '성진농민조합사건'이 1931년 9월에 발발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1930년대 후반 또는 1940년대 초를 함의하는 텍스트의 시기와 어긋나는 지점이 없지 않다. 그러나 맥락상 정준세가 미결된 사건들을 변론했을 가능성⁶⁴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으므로 타당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만은 없다.

그렇다면 텍스트에서 언급하는 '민족주의자들'의 사상적 근간은 어디로 짐작할 수 있을까.⁶⁵ 이는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하고 독립/해방운동을 추진해 나갔던 맥락에서 사용된 용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민족주의자들'의 맥락을 해방 이후에 펼쳐진 좌우익의 대립 양상에서 파악한다면 임금제와 같이 "생동한 가면적 민족의식"⁶⁶이라는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 임금제는 최정희의 「비탈길」을 비판하는 글에서

64) 농민조합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은 대부분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 「경관과 지주협력 50여 촌민 검거」, 『조선일보』, 1932.1.3.; 「친모 살해한 양 자매, 控訴公判 급일 개정」, 『동아일보』, 1932.11.15 등.

65) 일제 말기에 항일을 중심으로 결속했던 좌우익 민족주의는 해방을 맞으면서 건국준비위원회로 재결속하지만, 곧 첨예하게 분화한다. 이는 38선을 양분하고 미국과 소련이 자신들의 정책을 펼치기 위한 사상적 주입과 갈등 야기의 전략이 작용한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좌익계는 인민 개념에 기초한 민족주의로 자본가 및 지주계층을 견제하고 일제잔재 소탕, 봉건잔재 청산 등의 활동을 펼쳤다. 우익계는 전통과 순수, 순결주의에 입각한 민족주의를 내세웠다. 김기훈, 앞의 글, 124~127면.

66) 임금제는 1949년 7월의 소설평에서 최정희의 작품을 혹평하는데, 그가 가면적 민족의식으로 본 작품은 「비탈길」(『문예』, 1949.8. 창간호, 24~36면)이다. 「비탈길」의 내용은 관동대진재 및 학병·징병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여기서 임금제의 글은 7월 소설평인데 「비탈길」은 8월호에 실린 작품이라 의아할 수 있으나, 작품집의 발행일은 8월 1일이기 때문에 투고를 기준으로 하면, 7월 작품이 맞다. 그가 글에서 창간호 『문예』를 언급하는 점, 최정희와 함께 거론하는 염상섭 등도 같은 작품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임금제, 「칠월 소설평(一) 허구와 진실」, 『조선일보』, 1949.8.13. 2면.

스스로 우익계 비평가라고 밝히면서 최정희를 좌파 계열로 분류하고, ‘민족주의자들’이나, ‘일본을 배워 우리 힘으로 정복할 수 있다’⁶⁷⁾라는 최정희의 발언에 불편함을 드러낸다. 또 최정희가 해방 후 작품 세계에 대해 소재 외에 달라진 것이 없다고 두 번씩이나 밝히는 계기를 제공했던 백철 역시 「風流잡히는 마을」의 평⁶⁸⁾에 이어 「비탈길」에서도 “해방 뒤 이 작가가 문장의 전환을 고하고 있는 야심은 알 수 있으나 그 신수법의 성공은 아직 보증되어 있지 않다”⁶⁹⁾라고 말한다. 이런 점은 결국 당대 좌우익의 이념을 염두에 두었던 비평으로 인해 작가의 의도가 재단된 면도 없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지점이다.

정리하자면, 창작 연월일의 수정이 의도적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를 통해 단정에 대한 새로운 독립/해방의 인식 층위는 야기되며, 기존 사회 질서에 균열을 일으키거나 신념을 실천할 새로운 주체의 필요성을 재고하게 한다. 이로써 3장에서 살펴본 목수 아들이나 여성들의 행동을 재발견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5. 나가며

지금까지 이 글은 최정희의 해방기 소설에 나타난 신념체계를 독립/해방의 의미와 연계해 살펴보았다. 해방기 소설이 이전 시기의 작품과 결이 다르다고 하는 언급을 최정희가 부정한 것이 이 글의 문제의식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가 사용하고 있는 독립/해방은 민족해방과 여성해방을 아우르면서 기미년의 독립과 민족 광복의 사건을 연속성으로 파악하려는 의도에 따라 사용된 말로, 최정희의 페르소나라고 할 수 있는 지식인 서

67) 「비탈길」, 27면.

68) 이 글 각주 14) 참조.

69) 백철, 「분산 경향과 세부의 과잉」, 『민성』 5(통권 38), 1949.9.

술자는 독립/해방의 의미를 민족 광복에 국한하지 않고, 각 작품 속 주제마다 서로 다른 기대와 또 그 기대가 좌절되는 양상, 그런 외중에 또 새로운 기대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독립/해방에 함의된 사상적 경사가 등단 초기 작품에서부터 작용하고 있는 점, 또 역사적 사실들과 직접적 연관성을 가지면서 작품을 추동하는 점은 1~2년 만에 형성된 포즈와는 다른 바, 먼저 그 연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최정희의 숙명여고보와 중앙보육학교 시절이 호명되었고, 또 근우회와의 관련성도 견주어 보았다. 결과적으로 최정희의 사회주의적 경향은 학창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체득되었을 확률이 높으며, 이로써 김유영의 영향 관계에서 형성된 단순한 포즈라는 관점보다 3년 이상은 소급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되었다.

다음으로는 덕소에서 체험이 단정 이전 작품에서 공통적 요소로 작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소작농, 여성, 지식인 등 다양한 광복 주체가 민족 해방에 거는 기대와 그 좌절 양상을 살필 수 있었다. 덕소를 배경으로 한 작품에서는 삼분병작제를 둘러싼 지주와 소작농의 주종관계가 문제가 되었다. 봉건사회 이래로 일제강점기까지 고착화되었던 이분병작제를 미군정이 삼분병작제로 개혁한 것은 표면적으로는 소작농을 위한 소작제로 판단되었지만, 최정희는 오히려 소작농을 궁지에 몰아넣는 제도로 작용한 점에 주목하고 소작농들이 해방기에 걸었던 기대와 좌절을 독립/해방의 의미 속에 구현하였다. 최정희는 이러한 양상을 지식인 서술자를 내세워 일제와 미군정이 자리 바꾸기 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는 정황을 보여주는 것은 물론, 지주들이 소작농의 소작권을 반납케 하는 방법으로 권력을 공고히 하는 것, 또 소작농들이 소작권을 사수하기 위해 삼분병작제를 포기하고, 지주의 공출을 떠안거나, 딸자식을 갖다 바치기까지 하는 것들을 문제 삼았다.

단정 이후 서울로 거처를 옮긴 최정희는 일제식민지기에 독립/해방에 투쟁하던 지식인들의 모습을 조명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그 과정과 함께

주목되는 점은 독립의 독립 표기와 창작 연월일의 수정을 통해 거두는 효과였다. 왜냐하면 이 시기가 좌우익의 갈등이 고조되고, 이후 단정에 따라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밖에 없던 때에 창작 연월일을 작품 발표 시점보다 일 년가량 늦은 시기로 수정한 의도는 시류에 발 빠르게 편승하려는 태도로 비판받을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 시기 최정희가 당대 우익계 평론가로부터 ‘가면적 민족의식’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점이 이를 말해준다. 하지만 해방 후의 좌우익 갈등 양상이 1947년 이후 단정을 목표로 한 행보에서 우익계의 사회 전반적 장악과 좌익계의 지하화 활동으로 전환될 때 최정희는 오히려 미군정의 시책을 비판하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신념을 실천하지 않는 지식인을 문제 삼았다. 작중 서술자가 최정희의 페르소나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실천이 없는 지식인은 다름 아닌 작가 자신으로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창작 연월일의 수정이 이야기하는 지점은 단정 수립을 다시 한번 독립이 필요한 사건으로 재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방기 소설이 이전 작품과 결이 다른 것이라는 주장과 이를 부정하는 최정희 간의 간극은 민족해방과 여성해방의 문제를 이전 시기의 작품에서보다 사회 구조적 문제와 연계해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데 따른 결과라고 판단되었다.

이 글은 최정희의 해방기 소설을 독립과 해방의 다층적 의미로 재조명하여 식민지기와 미군정기를 연속성에서 파악하고, 최정희의 신념체계를 규명하고자 했다. 해방기 다른 작가들과의 작품 비교를 언급하는 데 그친 점은 추후 연구에서 보완하기로 한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최정희, 「朝鮮女性運動의 發展過程」, 『만국부인』, 삼천리사, 1931.11.
 _____, 「暴風에 쓸리는 나의 故郷」, 『삼천리』, 삼천리사, 1931.12.
 _____, 「남포燈」, 『문학타임즈』, 1933.2.
 _____, 「人脈」, 『문장』, 문장사, 1940.4.
 _____, 「봉수와 그 家族」, 『민성』 3권 5~6호, 고려문화사, 1947.7.
 _____, 「占禮」, 『문화』, 1947.7.
 _____, 「風流잡히는 마을」, 『백민』, 백민문화사, 1947.8~9.
 _____, 「꽃 피는 季節」, 『새한민보』, 1947.11. 상순호.
 _____, 「靑涼里의 근처」, 『백민』, 백민문화사, 1948.1.
 _____, 「우물치는 風景」, 『신세대』, 신세대사, 1948.2~5.
 _____, 「靑塔이 서 있는 洞里」, 『부인』, 부인사, 1949.1, 3, 4, 7월호.
 _____, 「비탈길」, 『문예』, 문예사, 1949.8~9.
 _____, 『風流잡히는 마을』, 아문각, 1949.7.
 _____, 「나의 문학 소녀시절」, 『동아일보』, 1958.7.2.
 _____, 「처음 밝히는 나의 과거」, 『한국문학가 수기전집』, 평화문화사, 1971.

2. 단행본

- 강준만, 『한국현대사 산책 1940년대 편 2권』, 인물과 사상사, 2005.
 김복순, 『나는 여자다.방법으로서의 젠더』, 소명출판, 2012.
 김윤식, 「인형의식의 파멸」, 『한국문학사 논고』, 범문사, 1973.
 김재철, 「各地에 일어나는 傾向劇」, 『조선연극사』, 학예사, 1970.
 이해숙, 『미군정기 지배구조와 한국사회』, 선인, 2008.
 정병준,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 광복 직전 독립운동세력의 동향』, 한국독립운동사 편찬 위원회, 2008.
 조병무, 「최정희론」, 『탐돌이』, 범우사, 1974.
 최정희, 편집부 엮음, 「가난과 눈물의 시대를 이겨내고」, 『이야기여성사 2』, 여성신문사, 2000.
 가야트리 차크라보르티 스피박 외(태혜숙 역), 로절린드 C.모리스 엮음,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 그린비, 2019.

3. 논문 및 평문

- 강혜경, 「숙명여고보 맹휴사건으로 본 식민지 여성교육」,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7,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0, 265~305면.
- 곽종원, 「최정희론」, 『문예』 1, 문예사, 1949.8.
- 김기훈, 「한국민족주의운동의 이념적 분화」, 경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2.
- 김민수, 「해방전후의 역사적 전환과 문학적 인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22.
- 김연숙, 「사회주의 사상의 수용과 여성작가의 정체성」, 『어문연구』 33권 4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5, 333~356면.
- 김옥엽, 「연애결혼비화」, 『신여성』 7, 1933.1.1. 100~102면.
- 류진희, 「해방기(1945~1948) 감정의 전환과 젠더 동학-여성작가의 소설을 중심으로」, 『구보학보』 28, 구보학회, 2021, 431~459면.
- 박정애, 「최정희 소설에 나타난 여성적 글쓰기의 특성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8.
- 박죽심, 「최정희 문학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0.
- 방민호, 「1930년대 후반 최정희 소설에 나타난 여성의 의미」, 『한국현대소설연구』 30, 한국현대소설학회, 2006, 61~92면.
- 배상미, 「해계모니적 남성성을 넘어서려는 연합적 정치들: 해방기 최정희 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49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0, 63~90면.
- 백철, 「어류문학의 현상, 최근 작품을 중심으로」, 『중앙신문』, 1947.9.28.
- _____, 「현상은 타개될 것인가(6)」, 『경향신문』, 1949.1.12.
- _____, 「부산 경향과 세부의 과잉」, 『민성』 5(통권 38), 1949.9.
- 신영희, 「식민지 조선에서의 징병제와 군국 모성: 최정희의 1940~1945 작품을 매개로」, 『대동문화연구』 59,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7, 403~441면.
- 심진경, 「최정희 문학의 여성성-여성작가로 산다는 것」, 『한국근대문학연구』 13, 한국근대문학학회, 2006, 93~120면.
- 유수춘, 「조선현대문예사조론」, 『조선일보』, 1933.1.3~5.
- 이동복, 「815는 아직 ‘광복’의 날이 아니다-통일까지는 ‘해방’과 ‘독립기념일’로 기념하자」, 『월간군사』 8, 월간군사저널, 2021, 8~10면.
- 이미리, 「최정희론」,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0.
- 이민영, 「해방기 소설과 수난의 서사」, 『한국현대문학연구』 45호, 한국현대문학학회, 2015, 123~151면.
- 이병순, 「현실추수와 낭만적 서정의 세계」, 『현대소설 연구』 26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5, 131~149면.
- 이송희, 「부산지역 신지식층 여성들의 등장과 단체활동 - 1920년대 여자청년회 활

- 동을 중심으로, 『여성과 역사』 3, 2005, 77~114면.
- 이양숙, 「해방 직후 한국문학의 서발턴과 듣기의 윤리」, 『한국현대문학연구』 67, 한국현대문학학회, 2022, 129~144면.
- 이은희, 「농지개혁의 의미와 한계」, 『법학연구』 21,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165~205면.
- 일기자, 「批判의 批判 朝鮮女性運動의 發展過程을 읽고 : 崔貞熙氏의 蒙을 啓함」, 『비평』 제1권 8호, 비평사, 1931.12. 63~65면.
- 임궁재, 「칠월소설평(一) 허구와 진실」, 『조선일보』, 1949.8.13.
- 장세진, 「치안과 정치 사이에서-해방기 빈곤 대중의 존재론」, 『현대문학의 연구』 56, 한국문학연구학회, 2015, 257~297면.
- 장원아, 「근우회와 조선여성해방통일진선」, 『역사문제연구』 23, 역사문제연구소, 2019, 391~431면.
- 최경희, 「친일 문학의 또 다른 층위-젠더와 〈야국초〉」, 『해방전후사의 재인식 1』, 책세상, 2006, 387~433면.
- 홍구, 「여류작가군상」, 『삼천리』 5권 제3호, 삼천리사, 1933.3.

4. 신문 기사

- 「숙명여고보생 총동맹휴교단행」, 『조선일보』, 1927.5.27.
- 「단천여청회발기 창립대회는 8월 8일에」, 『동아일보』, 1927.8.3.
- 「경찰부 전후 검거 정재달 외 십사명」, 『조선일보』, 1928.10.21.
- 「지방인사」, 『조선일보』, 1929.4.17.
- 「함안청맹집행」, 『조선일보』, 1929.5.29.
- 「근우회 대회에 행동강령과 의안」, 『조선일보』, 1929.7.25.
- 「근우회의 중앙간부선거」, 『조선일보』, 1929.7.31.
- 「각 학교가 계속 휴학을 선언」, 『동아일보』, 1929.12.28.
- 「광주사건의 의의」, 『동아일보』, 1929.12.29.
- 「사건일지(2)」, 『동아일보』, 1929.12.29.
- 「단천근우대회」, 『조선일보』, 1930.5.29.
- 「경관과 지주협력 50여 촌민 검거」, 『조선일보』, 1932.1.3.
- 「친모 살해한 양 자매, 공소 공판 금일 개정」, 『동아일보』, 1932.11.15.
- 「문화인 동정」, 『경향신문』, 1949.7.4.

<Abstract>

The meaning of 'independence/liberation' in Choi Jung-hee's liberation novel

Cha, Jin-hwa

This article attempted to examine the fact that the meaning of independence/liberation in Choi Jung-hee's liberation period novel is not limited to national liberation, but acts as a cover for the different expectations and ideological inclinations of the liberation subject. The parallel arrangement of independence/liberation is based on Choi Jung-hee's expression, and although the discourse produced by the two concepts is different, the daily struggles experienced by the liberation subjects can be identified as structural problems when grasping the liberation period as an extension of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Choi Jung-hee's interest in independence/liberation has been steadily focused since the beginning of her debut, including the influence of her school days, and it cannot be said to be a simple pose. The novel of the liberation period is like placing the possibility of a certain expectation in the symbol of the liberation space, recreating the subjects whose expectations were put on the liberation period by the dominant power rather than the confrontational structure of the dominant power and the subject against it. This can be evaluated as looking for the meaning of independence/liberation in the middle of a concrete life beyond the ideological slope.

Key words: Choi Jeong-hee, liberation period novel,
independence/liberation, land reform act, Establishment of
South Korea's Independent Government

투 고 일: 2023년 8월 14일

심 사 일: 2023년 9월 8일

게재확정일: 2023년 9월 8일

수정마감일: 2023년 9월 18일